

한마음선원 자율성-능인선원 시스템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회의서 조기룡 연구교수 사찰경영 노하우 정리

인양 한마음선원, 서울 능인선원,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부천 석왕사 등 도시에 위치한 대형사찰은 현대식 포교의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출가자에게 수행만큼이나 입진수수(入塵垂手: 저자거리에서 자비의 손을 드리움)하는 자세가 중시되면서 하회중생을 실천하는 도심포교당이 늘고 있지만, 부침(浮沈)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한마음선원 등 도심포교 성공사례에서 사찰경영의 노하우(Know-how)를 분석·정리한 발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11월 5일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이온양관광호텔에서 개최한 제4회 학술회의에서 '사찰경영의 모범적 사례와 사회적 평가'를 주제

발표했다. 조 연구교수는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의 성공요인을 신도의 개성과 자율성 중시, 실행단체의 활발한 활동, 관련 단체의 활성화와 현대적 포교방법으로 파악했다.

능인선원(원장 지광)의 성공요인은 신도교육 시스템과 가정법회의 조직화, 신도의 주체적 사찰운영 참여로 정리했다.

석왕사(주지 영담)는 지역사회와 함께 펼쳐 온 사회복지 활동과 창건주인 고산 스님(전 조계종 총무원장)에게서 후임자인 영담 스님에게 원만히 계승된 리더십이 성공요인으로 꼽혔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는 철저한 신도교육과 봉사시스템 구현, 조직의 체계화가 사찰경영의 성공을 이끈 것으로 파악했다.

조기룡 연구교수는 "한마음선원 등 표본사찰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도를 교육해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후 대



조기룡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적으로는 사찰의 일에 동참시키고 대외적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한 공통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종교상업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조 연구교수는 "대형사찰의 분원·지원 운영은 해당 사찰 입장에서 사세(寺勢) 확장은 되지만, 인근 중소형사찰에게는 생존의 위기가

될 수 있다"면서 "불교계에서는 아직까지 대형사찰의 분원·지원으로 인한 피해가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개신교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교수는 "사찰의 외적·수적·양적 성장에 대한 포교적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사찰의 크기가 아닌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찰을 경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법진 스님(선학원 이사장)이 '21세기 한국불교와 사찰경영'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사찰재정의 관리방안'을, 고명석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연구원은 '신도교육과 신도조직 관리의 효율적 방안'을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불교는 현대 사회 갈등의 해법”

원각불교사상연구회 제12회 천태국제학술대회

물질적 풍요 속에 이념·종교적 갈등을 거듭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불교적 조화가 해법이며, 불자들은 정보기술을 통해 포교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각불교사상연구회(소장 권기중)는 10월 31일 서울 관문사에서 '21세기 문명과 불교'를 주제로 제12회 천태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아용뎡민 미얀마 종교성 국장은 주제발표 '21세기의 문명과 불교'에서 "불교는 현대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해법일 뿐 아니라, 정보기술을 이용해 현대 인지심리학과 대비하는 등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주장했다.

아용뎡민 국장은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며, 마음을 늘 깨끗이 하라"는 <법구경> 가르침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부처님은 도덕성과 집중, 지혜를 강조

했다"면서 "21세기의 불자들은 정보기술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석 금강대 교수도 '과학시대의 과학적 불교'를 통해 아용뎡민 국장의 주장에 동감을 표했다.

최 교수는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종교관련 정보 교류와 친교활동의 보완적 수단으로 이미 인식되고 있다"며 "불교를 과학적으로 해석한 과학적 격의불교를 통해 현대 인지심리학과 대비하는 등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술발표에 앞서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법어에서 "급변하는 21세기 문명 속에서 불교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큰



아용뎡민 미얀마 종교성 국장

의의가 있다"며 "어떻게 하면 불교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전해질 수 있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인류

가 행복을 전해줄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얀마 연방 예외도 부중정도 법어를 통해 "이 세상에서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헐뜯고 해주는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고 받지 못한 이들"이라며 "욕심과 성냄, 어리석음을 없애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흥분해 힘

쓰자"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제1회 원효학술상 후보 공모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한구·성균관대 교수)는 제1회 원효학술상 후보 공모를 실시한다.

원효학술상은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진)의 지원을 받아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주도할 젊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상은 불교사상 연구부문을 비롯해 서양사상과 불교사상·동양사상과 불교사상의 학제간 연구의 3개 부문에 △교수 △박사 후 연구자 △학부·박사과정생 등 3개 영역별로 총 3000만원이 전담된다. 수상후보자는 불교계 종립대를 제외한 대학의 철학 관련 학과 학자 및 학생에 한한다.

지원은 지원서 1부와 저술 혹은 논문 1부를 2010년 1월 4일~2월 26일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에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단, 학술 논문은 해당 학과 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원해야 하고, 심사대상 작품은 최근 5년 이내(2005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발표된 저술이나 논문에 한한다.

지원서는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심사결과는 4월 말 선정자에 한해 개별통보되며, 시상식은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02)719-2606 조동섭 기자

명상문화연구원 11일 고불법회

명상 대중화 통한 수행과 봉사의 삶 제시

불교적 안목으로 한국 전통명상 문화를 연구·보급하기 위한 기관이 설립된다.

명상문화연구원(이사장 세민, 소장 현중)은 "11월 1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설립기념 고불법회를 봉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고불법회에 이어서는 '명상과 삶, 그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서'를 주제로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의 법문과 명상아카데미 원장 해봉 법사의 강연이 마련됐다.

연구원은 '명상은 삶의 본질'을 캐치프레이즈로, 명상의 대중화를 통한 수행과 봉사적 삶을 선도해 인류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자 설립 준비했다.

현중 스님은 "현재 인류의 삶을 살펴보면 배금주의·과다경쟁주의·과학만능주의에 쫓길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의 범람으로 가치관·인간관의 혼란이 가중돼 정체성을 잃고 있다"며 "명상만이 인류가 당면한 제반 문제에 대한 근본해결의 빛이요, 열쇠"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명상의 과학적 검증

을 비롯한 명상법 연구 △미디어 등을 활용한 명상보급방법 연구 △명상수행용품 개발 △명상 수행·실천 조직을 포함한 대중수행 프로그램 보급 △명상리더 양성 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연구원은 또, 첫 사업으로 '인도 순례 명상기행'을 기획했다. A·B·C 등 3팀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인도순례 명상기행'은 동국대 김선근 교수 안내로 팀별로 남인도·용수보살 유적지 등을 돌아본다. (02)1577-0373

천축사 괘불 문화재로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11월 5일 도봉산 천축사 비로자나삼신불도와 비로자나삼신괘불도를 각각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92·293호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또, <천로금강경> <원동성불문> <선가귀감> 등 '개운사 목아미타불 좌상복장일괄'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91호로 지정·고시했다. 조동섭 기자

지증대사적조탑비 국보 승격

문화재청 지정예고... 통일신라 말기 대표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11월 5일, 보물 제138호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鳳巖寺 智證大師 寂照塔碑)'를 국보로 승격 지정 예고했다.

국보로 지정 예고된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는 구산산문의 하나인 회양산문(峴陽山門)의 개창자 도현 국사(道憲國師, 즉 지증 대사의 탑비이다. 비석의 크기나 귀부와 이수의 조각수법 등이 통일신라 말기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양식과 기법을 보여준다.

특히 비문은 신라의 대문장가인 최치원(崔致遠)이 지었다.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는 최치원이 지은 대승복사비(大崇福寺碑), 성주사 낭화상백월보광탑비(聖住寺郎慧和尚白月葆光塔碑, 국보 제8호),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雙溪寺眞鑑禪師大空塔碑, 국보 제47호)와 함께 4산비문의 하나로 일컬어진다.

비문에는 신라불교사를 3시기로 나누어 약술하고, 도신(道愼) - 쌍봉(雙峰) - 법랑(法朗) - 신행(愼行) - 준법(準範) - 혜은(惠隱) - 도헌(道憲)으로 이어지는 도헌 국사의



국보로 승격 지정 예고된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

법계(法系)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한국 선종사 연구의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또한, 비에는 탑비를 세운 연대와 비문을 쓰고 각자(刻字)한 인물이 분황사 승려 해강(海江)이라 쓰여져 한국 서예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조동섭 기자

'국제불교문화사상'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회장 송석구)는 최근 영문학술지 <국제불교문화사상> 제13집을 발간했다.

책에는 △'신라 밀교의 관상수행에 관한 고찰'(정성준 동국대 BK21 연구교수) △'제1차 세계대전과 1989년 벨벳혁명 사이의 체코 불교와 불교학'(지리 출판, 체코 프라하대) △'붓다교사와 마하비라 사원의 발견'(김경래 동국대 박사과정생) 등 논문이 수록됐다.

또, 찰스 윌러 일본 동경대 교수의 서평 '박성배의 <몸과 몸짓의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실렸다.

한편,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는 불교문화와 사상에 관한 이론과 불교학의 학제간 연구 등을 위해 2002년 7월 창립해 매년 2회 학술지를 발간해 왔다. <국제불교문화사상>(편집위원장 김용표)은 세계 150여 개 주요 대학 도서관과 학술기관 등에 보내지고 있으며, 20여 세계유수 대학 도서관에서 정기구독하고 있다. 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이며, A&HCI 등재를 준비 중이다. (02)2260-3835 조동섭 기자

한국종교교육학회 13일 추계학술대회

다양한 종교의 욕망관을 통해 종교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가 마련됐다.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용표)는 11월 13일 오전 10시 가톨릭대 성심교정 미카엘관 4층에서 '인간의 욕망과 종교교육'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불교- '욕망의 관점에서 본 불교의 교육론'(박범석 동국대 교수) △유교- '유가 욕망론의 기본적 특성에 관한 고찰'(정도원 성균관대 교수) △통일교- '통일교의 욕망이해와 다스림'(이재영 선문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02)2260-3835 조동섭 기자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 정 : 2009. 11. 21(토) 오후 1시부터 ~ 11. 22(일) 오후 6시까지
- 수강료 : 10만원 (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 (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H·P 010-2031-1233 ☎ 02) 313-5047

※ 수효사 7층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 백천사에는 오후 1시까지 도착바랍니다.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 (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343일 조상천도 법회 봉행 안내

1. 조상 꿈을 많이 꾸는 분
2. 병명없이 몸이 자주 아픈 분
3. 부부간, 형제간 가정 불화가 많은 분
4. 집안에 우환 및 사고가 많은 가정
5. 사업이 부실하고 고통이 많은 분
6. 특히 건설업, 운수업을 하시는 분
7. 자손이 귀하거나 탈선하는 가정
8. 관재수나 손재수가 많은 분
9. 입사생, 수험생 자녀가 있는 분
10. 관직, 승진, 선거출마 예정자 등

귀의삼보하옵고
불자님들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발원합니다. 저희 지장선원에서는 조상천도, 호국영령, 천재지변, 각종 사고사망, 낙태태아 등 돌아가신 영가들을 위하여 343일간 7번의 49재와 천도재 구병시식 법회를 봉행하여 유주무주교혼 애혼가 열위열명영가를 극락세계 상생상생케 할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 우환이나 근심거리가 있으신 불자님들을 위하여 매 49재마다 천도재 구병시식을 함께 봉행합니다. 이 거룩한 법회에 무로 동참하시어 모든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천도공덕으로 가내 두루 평안하고 영원복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입재법문 : 현각 큰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입재 : 2009년 12월 1일(음 10.25) 사재 : 2010년 6월 14일(음 5.3)
초재 : 2010년 1월 18일(음 12.4) 오재 : 2010년 8월 2일(음 6.22)
이재 : 2010년 3월 8일(음 1.23) 육재 : 2010년 9월 20일(음 8.13)
삼재 : 2010년 4월 26일(음 3.13) 회향 : 2010년 11월 8일(음 10.3)

접수문의 : 031) 444-5935~6 / 1588-1936 종무소

조계종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조실 지관 / 회주 세민 / 주지 현호 / 신도회장 심정규 / 수석교문 이필상

찾아오시는길

안양고사거리 CGV 사거리